

지역 소식통

부안군농기센터, 2025년

농촌지도사업 대상 수상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는 지난 9일 전북농업기술원 상록관에서 개최된 2025년 농촌지도사업 전북도 종합 평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5년도 농촌 진흥사업 우수성과 공유, 도·시군간 소통의 장 마련과 우수기관 표창 및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된 평가회에서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사례 발표를 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최형자 농촌 지원과장은 농촌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 전문 역량 강화와 현장 맞춤형 영농지도, 성공적인 농업인 대학 운영, 조경기능사 및 농업용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 등 선도농업인 기술지도에 중점을 둔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차세대 농업인 육성 위한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에 영농 정착과 신소득 발굴에 앞장서고 부안 미리 살아보기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을 부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장애인복지위원회
신규 위원 8명 위촉

정읍시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0일 '정읍시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올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와상 중증장애인 지원 등 내년도 핵심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먼저 새로운 위원들을 맞이하는 위촉식이 열렸다. 전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8명의 신규 위원은 위촉장을 수여받았으며, 이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정읍시장애인복지정책에 참여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복지 발전을 이끌게 된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현황 보고와 2026년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친환경 고품질 김 '첫 수확'

올 겨울 심원면 만들 갯벌서... 명품 고창 전통 지주식 김 1년 만에 수확 재개



고창군이 400년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이 중단 위기를 극복하고 올 겨울 첫 수확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연간 불길 600톤 생산과 마른김 가공공장 운영 매출을 포함해 총 7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난해 원전 보상 소멸로 어민들이 생계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고창군은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수심제한 원회를 내용으로 하는 양식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해수부에 건의했고, 지난해 7월 시행령이 개정된 후 군은 한빛본부와 협의를 거쳐 9월 말 전북도로부터 지주식 김 한정 면허 승인을 받아 10월 최종 김 한정 면허를 청문했다.

재개된 고창 전통 지주식 김 어장은 '지주식 김 한정 면허'를 확보한 고창군 심원면 만들 일대 200㏊ 규모로 조성되었다. 고창 전통 지주식 김은 일반적인 부류식 양식과 달리 갯벌에 자주 빠지고 있어 전통 방식의 고품질 김 생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간조 때 하루 4~5시간 자연 햇빛에 김벌이 노출되면서 자연살균 효과가 발생해 별도의 약품 세척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더욱 청결하고 안전한 김 생산이 가능하다.

어장이 위치한 고창 만들 갯벌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구역이다. 갯벌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어 전통 방식의 고품질 김 생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 방식이 어우러져 생산되는 고창 전통 지주식 김은 뛰어난 맛과 영양을 자랑하며, 앞으로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군수는 "친환경 김 그물망 구입, 불길포대 구입, 종자구입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야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생활 인구 50만 달성·10만 유지' 총력

정읍시, 교육계와 함께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캠페인 추진

생활인구 월 50만 명 달성과 인구 10만 명 유지를 목표로 내건 정읍시의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이 교육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진 이 캠페인은 최근 정읍여자고등학교(교장 박인숙), 정읍고등학교(교장 김향운), 학산중학교(교장 강위수)가 동참하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 중인 이번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은 정읍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주민 전입을 유도하는 '정읍 애(愛) 주소갖기' △사계절 체류 인구를 늘리는 '정읍애(愛) 머무르기'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읍애(愛) 함께살기' 등 3대 중점 과제를 설정해 추진 중이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인구 10만 명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공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정읍시는 전입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돋기 위해 과제하고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세대원 1인당 15만원의 전입지원금 △연 50만원의 전입 대학생 거주비용 △최대 50만원의 전입 청년 이비용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첫째 200만원부터 넷째 이상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59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월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 최대 300만원씩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해 생활 민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학교들 역시 정읍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며 인구 유입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정읍여고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기반으로 친환경적인 교육 환경과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 체계를 갖췄으며, 기숙형 공립고인 정읍고는 민주적인 교육공동체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돋고 있다. 학산중학교 또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에 힘쓰며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행정기관민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교육기관들의 참여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새일센터, 성과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올해 우수등급인 B등급 달성... 취업·창업 실적 30% 이상 증가

정읍시가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0일 '정읍시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올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와상 중증장애인 지원 등 내년도 핵심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년 만에 이뤄낸 극적인 반등으로,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서 그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10일 정읍새일센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2024년 실적) 새일센터 성과운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B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D등급에서 무려 두 단계나 뛰어오른 성과다. 특히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성과를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8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지원 실적 △구인·구직 밸류 및 상담, 직업교육 훈련 등 서비스 제공 수준 △센터 운영 효율성 등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했다.

정읍새일센터는 직업교육훈련의 규모를 키우고 인턴십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취업 연계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주요 평가지표 전반에서 고른 성과를 보이며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실제로 정읍새일센터는 올 한 해 지역 여성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돋

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취업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직업교육 훈련을 편성하고, '새일여성인턴십' 기회를 확대해 현장 적응력을 높였다. 또한 여성친화일촌기업과의 업무협약(MOU)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직 활동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과 구직자 간 가교 역할에 충실했다.

이러한 노력은 구체적인 수치로도 증명됐다. 취업·창업 실적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773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 42명의 새일여성인턴을 기업에 연계하고, 여성친화일촌기업과의 협약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폭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부안군과 부안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부안군교육지원청 종합교육관에서 '2024~2026 부안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간 추진된 특구 사업 결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군수·교육장, 도·군의원, 관내 교장·교감, 지역 유관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부안군은 지난해 2월 교육부로부터 '부안밀 베이커리 특화교육 산업 특구'로 지정된 이후 2024~2026년까지 총 166억 원 규모의 교육·돌봄·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밀 제과제빵 교육관 조성사업,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사업, 지역 돌봄환경 개선, 공교육 교육지원 등 주요 사

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가시적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부안군과 부안교육지원청은 특구 남은 기간 동안 제과제빵 교육관 조성, 진로·진학 체계 고도화, 지역 돌봄모델 확대 등 '부안형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올해 학교 방문 성과 발표

현장의견 98건 중 47건 조치

방과후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청취했고, 현장에서 논의 직후 즉시 실행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처리했다.

분석 결과에서도 학교 현장의 절실했던 요구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교육시설 분야 55건(56.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활동 분야 24건(24.5%), 활동지원 19건(19.4%)이 뒤를 이었다.

특히 냉난방 환경, 화장실 개보수, 운동장 정비 등 학습생활 기반 개선이 교육현장의 최우선 과제로 확인됐다.

고창교육지원청은 모든 건의사항을 △즉시처리(예산 반영), △단계 추진, △정책연계 검토, △학교 자체 해결 방식으로 분류해 대응하고 있으며, 남은 과제는 예산 반영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